

– 국내산 오리고기 대중화 방안



지상중계

국내산 오리고기 대중화 방안 연구 전문가간담회



- 일시 : 2012. 05. 22(화) 11:00 ~ 13:00
- 장소 :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간담회 주요 내용
 - 가. 본 기초 연구자료를 토대로 심층 연구사업 필요
 - 영양사 대상 연구 및 급식확대를 위한 교육 등 필요
 - 급식재료 활용 저조에 따른 원인 분석과 확대 대책 등
 - 나. 어린이와 젊은층 공략 필요 (연령층 별 맞춤 마케팅 전략)
 - 다. 가정식 소비 확대 주력 (다양한 제품과 메뉴 개발 등)



이우진 감사) 음식은 그 나라 고유문화와 직결. 일본은 경제성 중요시. 가금류 크게 키우도록 장려하나 우리나라는 영계를 선호. (연하고 부드럽다는 인식 때문) 증체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도축하는 시스템.

중국산 아질산나트륨 기준치 이상. 항생제 잔류물 검출된 바 있음. 세계 추세가 Red Meat에서 White Meat로 선호도 이동.

White Meat는 단순히 육색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산 구성으로 구분.



김만섭 고문) 현재 홈쇼핑과 대형마트 등에 200~350g 기준 소포장 제품 출시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음. 허경옥 교수님의 발표 중 오리고기 소비 관련 설문조사 중 1~4회 섭취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3%라고 했는데 이를 늘리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이 있겠는지, 또 어린아이들에 오리 소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 있겠는지, 또 어린아이들에 오리고기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



허경옥 교수) 먼저 정확히 포커스를 맞춘 심층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실생활 곳곳에 오리고기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김연화 원장) 소, 돼지 원산지 표기관리 엄격. 오리고기는 굉장히 약화돼 신뢰도가 많이 떨어짐. 국내산과 중국산 훈제오리 비교시 정확한 비교 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



김영란 국장) 요리법 다양화가 관건.



이우진 감사) 오리고기는 비싸다, 냄새난다, 주로 약으로 쓰인다, 노인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다. 이 4가지 부정적 인식이 있어왔다.

오리시장은 B to B에서 B to C 시장으로 전환중. 예전에 가정소비 5%였는데 12%로 늘어난 것이 소포장 오리육 증가 추세 반영된 것으로 보임.

아직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안이 TV 매체, 드라마 등 회식장면에 항상 삼겹살에 소주가 등장하는데 이런 문화를 오리고기와 매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허경옥 교수) 정확히 원하는 니즈를 이야기해주는 소비자는 5%도 안됨. 마케팅 전략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 그에 맞추는 방안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소비자를 선도해 나가야 하는 산업이 있는데 오리산업은 후자의 마케팅 방법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그에 따라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방법도 필요할 것.



배종율 지회장) 생산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인식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계기. 오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이느냐에 따라 육색도 달라짐.

강근호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농가 입장에서 3.2kg 기준 출하시 사료효율이나 육질 면에서 좋은데 계열업체에서는 3.5kg 이상을 원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음.

출하중량 3.2kg을 표준화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



이우진 감사) 오리고기 만큼 자급을 높은 육류가 없음에도 홀대를 받고 있음. 이러한 것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인증제가 필요한 것.



김정주 교수) 육계는 계열과 농가간 갈등의 골이 깊음. 이는 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침. 오리업계는 미연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여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함.



이우진 감사) 오리는 항생제도 거의 쓰지 않아 안전성 높은 식품.



김연화 원장) 오리 관련 포럼을 만들어 이와 같은 소비대책 등 논의하면 좋을 것. 소비생활연구원에서도 친환경 농장 견학을 통해 인식을 개선한다든가 교육을 통해 오리 관련 잘못 알려진 부분을 홍보하는 한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오리고기의 영양적 우수성 등을 강조하는 활동을 해 나갈 것.

〈국내산 오리고기 대중화방안 연구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 명단〉

직위	업체(농장)명	대표자(참석자)
한오협 회장	윤태농원	이창호
한오협 전북지회장	아곱농장	배종율
한오협 고문	청산식품	안희복
한오협 고문	모란식품	김만섭
한오협 감사	주원산오리	이우진
한오협 전무		이강현
한오협 계열유통분과협의회회원	코리아팔도	이미영
한오협 계열유통분과협의회회원	신촌자연오리	곽재운
한오협 계열유통분과협의회회원	자연일가	김충석
한오협 계열유통분과협의회회원	코리아더커드	문순금
한오협 계열유통분과협의회회원	신선산오리	하인목
외부인사	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
외부인사	건국대학교	김정주 교수
외부인사	성신여대	하경옥 교수
외부인사	농협중앙회	김삼수 팀장
외부인사	축산과학원	강근호 박사
외부인사	축산신문	김영란 국장
외부인사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